

갈멜에서 호렘까지

위클리프는 전 세계의
글 없고 성경 없는 소수민
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규준/한진숙 선교사는 지난
2003년부터 위클리프캐나다
와 함께 한인 동원사역에 전
념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가 한
순간에 이세벨의 칼을 피하는
도망자로 전락해서 죽기를 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
루만지고 먹이시고 심을 주서
서 호렘산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세대를 넘고, 피아를
아울러 사람들을 통해 일하
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다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사역이 긴 안목을 갖
고 사람을 세우고 협력하여 하
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소
원합니다.

조력자로 섬기고 있는
한진숙 선교사



감사 찬양!

자기 백성, 교회와 함께
하시오 특별한 열심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삼하 5:10, 시
46:7, 왕하 19:31, 사 37:32) 부족하
나마 내어드릴 때, 저희가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되고 통로로 쓰임 받게 하셨습니다.

카이로스 코스

그토록 기다렸던 한글 카이로스 코스가 하나
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토론토한인장
로교회에서 개최되었고, 18 분의 참가자들이
코스를 잘 마쳤습니다. 그 중 11명이 조력자
훈련을 받아, 앞으로 카이로스 코스를 섬길
준비를 하셨습니다.

참가자들은 카이로스 코스를 통해 선교단
체들 간에 또한 교회와 연합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 주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도록 본을 보이신 일을 깨닫
고 따르는 일에 확실한 배움과 삶의 실천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한분은 나눔을 통
해 “누구도 못말리는
극성스러운 하나
님의 사랑”을 노래했고,
다른 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
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계
3:20), 또 어떤 분은
성령님의 손에 들린
“열방을 향한 복음의



화살”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사
49:3, 6).

4년 전부터 도
입을 꿈꿔왔고, 1년
반 전부터 적극적으로 노
력해 온 이 사역이 본 궤도에 오

르게 됨을 정말 감사드리고,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운동을 통해 앞으로 더 많
은 캐나다 교회들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그리고 타민족 교회들이 하나님나라와 그분
의 선교를 위해 열심을 갖고 일어서게 되길
기도합니다!

세어 보기...

여지껏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뒤돌아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카이
로스 코스와 라이프게임 등을 도입하는 동안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돌아켜 보면, 많은
분들과 교회의 헌신과 동역으로 이 모든 일
이 이뤄졌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이로스 코스 첫 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예비하기
위해 자신도 드리고 백성들을 독려하는 모습
이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수 많
은 사람들과 손길을 통해 카이로스 코스를
예비하시고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일 주일을
헌신하신 참가자들, 영국에서 날아와 섬겨주
신 김성훈 선교사님, 숙소와 식사로 섬겨주신
윤혜정 집사님, 고근정 집사님과 봉사팀원들,
라이프게임과 카이로스 코스를 배태해주신
토론토한인장로교회와 도와주신 토론토영락
교회 본한인교회 등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